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9호 [루게 제23051호] 주제99(2010)년 4월 9일(금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사설

위대한 백두령장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기치밑에 강성병영하는 무적필승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전장, 전군, 전민이 혁명의 수뇌부뒤에 일심단결하여 당장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김일성조선의 역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일찍부터 천출명장의 비범한 자질과 품격,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시고 수십성상에 걸쳐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을 이끄시며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셨것은 우리 조국의 강성병영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은 우리 조국의 명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회색의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셨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굳건히 계승발전시키며 주체사상의 기치, 선군의 기치밑에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의 선군령장을 전투에 높이 모시고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나가는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내뿜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선군정치를 계속해나가는 한 우리 인민은 자주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될것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루게된다.》**

국가의 운명과 전도는 국방사업에 달려있으며 군사문제는 국가정치에서 중핵을 이룬다. 정치와 군사를 결합시키고 국가사업과 국방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빛나게 해결해나가는 탁월한 정치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실 때 나라의 위력이 비상이 강화되고 민족의 존엄과 운명이 확고히 담보되게 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지니시고 우리 공화국을 이끌어오신 역사는 선군으로 조국과 혁명의 명을 물려주고 강성병영의 세시대를 열어오신 불멸의 혁명실적으로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는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체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불변불휴의 활동으로 일관되어왔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과 같이 국가를 창건한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하고 수령의 혁명업적을 천추

만대에 끝없이 빛내어나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한 절세의 위인은 역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셨것은 우리 공화국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김일성조선으로 온 누리에 위용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계승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으며 강력한 권력에 의거하여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는 백승의 강군건설역사를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을 과감히 헤치시며 계급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것은 인류정치사의 기적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정치와 군사는 물론 경제문화건설과 외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이 높이 떨쳐지게 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일대 통성과 변영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고 역세게 전진하여온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년대기는 국방위주의 우리 식 국가정치체제야말로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국력을 강화하게 하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하면서도 정치체제이며 우리 조국과 혁명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담보하는 필승의 정치체제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 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날도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올해 최초로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명사단편하 구분대를 현시시찰하신것은 선군의 위력으로 오늘날의 대고조로대를 이룩하고 강성대국도 건설하시려는 백두령장의 드림없는 의지의 과시로 된다. 장군령의 위대한 정치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승리의 표제는 선군혁명의 붉은기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일동지와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장군님은 김일성조선의 강대성과 백승의 상징이시며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는 조국과 민족의 제일생명선이다. 혁명의 수뇌부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하며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에서 인민의 모든 리상이 활짝 꽃피며 우리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는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공화국이 자주적대강국 건설을 위한 힘과 백승의 기치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국가의 당당한 자주적존엄과 기상은 강력한 국방력에 바탕을 두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오늘 그 어떤 강적이나 대국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한 자주적대국을 가지고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존엄을 높이 떨

치고있다. 우리가 나아가는 자주의 길은 정의와 진리이며 조국과 민족의 끝없이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이다. 우리 공화국이 제국주의반동들의 강권과 압력, 끊임없는 침략행위와 극악한 제재봉쇄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있고 강력한 자주적국방력이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장구한 기간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국방력강화를 최우선적인 힘을 기울여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강력한 군력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바치신 정력과 로고는 그 무엇으로세도 다 헤아릴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역세게 자리나고 우리 공화국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진 불패의 사회주의국가강국으로 일떠서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자주와 정의의 지킴이 영웅적으로 싸우는 혁명적인민으로 존엄 떨치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의 힘은 천백배로 강해졌다. 오늘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이 그 무슨 《갑변사태》를 떠벌리며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기 위하여 획책하고있지만 우리는 힘이 있고 강하기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존엄을 훼손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날뛰는 전쟁광신자들은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하는 무적강군의 진짜전쟁맛을 보게 될것이다. 자주와 정의의 강력한 수호적인 백두산혁명강군이 철벽의 성세를 이룬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는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나가는 혁명적대고조의 기치이다. 조국의 강성병영은 선군의 위력으로 담보되는 기적과 혁신의 대고조에 의하여 이룩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공화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비약의 폭풍시대를 안아오신 불멸의 년대기로 수 놓아져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선군시대로 대표하는 승군한 정진력으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가 기둥이 되어 진격의 물과 구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밑에 우리 조국공공우에 선군혁명령도고조의 장엄한 포성이 울려 퍼지고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환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는 비상이 활화된 우리 공화국의 국력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선군천리마의 나래를 펴고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질세같이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정신을 체질화한 인민군대가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에서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철속도》를 창조하며 힘차게 돌진하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기백으로 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이 CNC기술에서 세

계의 첨단을 돌파하고 주체형생산체계를 완성하여 야금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켰으며 비날론폭포로 온 나라의 대장사를 안아온것은 선군의 위력으로 담보되는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찬 성과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백철불굴의 강행군정신을 따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산악력이 일떠서 불굴의 투쟁을 벌리는 정진력의 대고조, 바로 여기에 강성대국으로 거세차게 솟아오르는 우리 공화국의 모든 승리와 기적의 근본원천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국가사회체도를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사회주의 승리의 기치이다.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정치반은 선군의 길에서 굳건히 다져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십성상 혁명의 피어린 길을 헤치시며 마련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도를 선군의 위력으로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영원히 빛내이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 식의 위력한 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를 확립하고 선군정치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시어 우리 사회의 밑뿌리를 튼튼히 다지신 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고 인민군대의 혁명성과 전투력을 본보기로 하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본대를 끝까지 지켜나가고자 하는 분도 우리 장군님이시다. 선군혁명의 불길속에서 사회주의보루로 거언히 솟아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는 우리 공화국은 세계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체도는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드물지 않는 신념으로 뿌리내리고 불패의 선군공공우에 솟아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이다.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사회주의제도에하여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자주적인간의 참다운 삶을 누려오는 과정에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직하였다.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삶과 투쟁의 지킴이 영웅적 사회주의체도를 목숨바쳐 지키고있는것이 위대한 선군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백두산혁명강군이다. 혁명의 수뇌부와 일심단결, 사회주의가 운명공동체를 이룬 우리 사회주의보다 우월하고 공공한 체도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을 헤치려는 원수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는 결연한 혁명가들이다. 미래를 비롯한 온갖 원수들이 반공화국정에 계속 미쳐날뛰던 노호한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했것이다. 백두의 선군령장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줄기차게 전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금성철벽이다.

선군의 기치밑에 강성대국건설대승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실록은 자주시대를 향도해나가는 불세출의 위인만이 수놓을수 있는 불멸의 영웅사시이며 김일성민족의 만년제보이다. 여기에는 우리 시대 강군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모든 사상리론들과 귀중한 경험, 백승의 혁명방식이 집대성되었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강성부흥을 지향하는 혁명가들이 한생을 배워오다 따라배우지 못할 숭고한 품도의 귀감이 담겨져있다. 역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

는 선군혁명의 폭풍우를 헤치시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우리 조국의 강성병영을 위한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로부터 21세기의 태양으로 끝없는 칭송을 받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공공우에는 이제 떨치지 않아 강성대국선로의 승진고가 터져오르고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러울것없이 잘 살 날이 반드시 오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올해는 당장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조선로동당장건 65돐은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온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 빛내이는 역사적기치이며 선군의 기치따라 강성대국에 솟아오르는 김일성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는 대정치추진이다. 우리는 당장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경공업과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며 대한 당의 전투적소수를 높이 받들고 모든 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설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우리 공화국의 강성병영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공화국을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업적의 결정체인 김일성조선으로, 인민의 리상과 행복이 꽃피는 위대한 사회주의나라로 빛내이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역사의 준엄한 시험속에서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발전시키시려는것을 수령의 국가로서의 사회주의국가의 근본성격을 고수하기 위한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수령님의 이인위전의 리념이 빛나게 구현된 사회주의나라로 그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되었다.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회주의국가의 창건자인 수령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정치사상적, 물리도덕적귀감과 전통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을 영원히 잊지 말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선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적, 문화적, 체육을 통일적으로 통솔하여 인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나라의 국력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게 하는 국방위주의 우리 식 국가정치체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정권기관들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모든 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수호전의 역사가 확증되고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의 운명과 전도는 당의 선군정치를 어떻게 받들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선행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오중총7면대최초정위운동을 힘있게 벌려 백두산혁명강군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이 되는 올해를 전투준비와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여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역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군민대단결의 숭고한 화폭을 펼쳐놓았다. 인민군장병들은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밑뿌리인 군민일치를 철철같이 다져나감에 사상정신과 도덕, 투쟁기풍과 일본 등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인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군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군대를 성실성의 것 위해주고 원호하는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전체 인민이 투철한 대적판념을 가지고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의 힘, 우리의 과학기술로 전군현대화, 전군요새화, 전민무장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에 계속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우리의 국방공업을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 강성병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21세기의 강위력한 국방공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총공공에서 비약의 폭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적대고조사상은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기치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선군혁명을 시작하시고 우리 공화국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날 백두산강행군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전투에서 지휘하고계신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변 불휴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올해의 총공공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누구나 공민적의무를 깊이 자각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빛나는 위용을 세움으로써 우리 조국의 국력강화에 뚜렷한 삶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에서 계속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경공업과 농업부문을 대고조의 불길을 드세차게 지펴올려 당장건 65돐이 되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전환시켜야 한다.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군대,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있으며 혁명의 수뇌부뒤에 철철같이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 공화국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모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신심과 락관을 넘쳐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17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17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8일 4. 25분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불변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며 이 땅우에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환한 현실을 펼쳐

주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와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공화국기가 펼쳐져있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이 걸려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천만군민이 일심단결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특색공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에, 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로력적신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김영일동지, 김영춘

동지, 리용무동지, 오극렬동지, 전병호동지, 최태복동지, 리영호동지, 김경각동지, 김일철동지, 양형철동지, 김중태동지, 김중원동지, 김기남동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중앙위원회 위원장, 도당책임비서들, 당,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근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며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당과 군대,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시고 강성대

국을 향하여 도도히 전진해나가는 선군조선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불패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나갈려는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남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8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일찌기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밑에 참다운 혁명정권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독창적

인 국가건설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체도를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

함없는 경의의 정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

혁명령도따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당장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를 위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만방에 떨쳐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조 외교단과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외교관단장인 마르포니르 스페르데야코프 특명전권대사가 8

일 박의춘외무상에 전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주조 부판단인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장인 손연풍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부판단인 8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의 가치따라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앞날은 창창하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가는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이 뜻깊은 4월 9일과 더불어 더욱 세차게 나래친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온갖 광풍을 파김치 쪼고 헤쳐오는 나날에 우리모두가 심장에 더욱 깊이 새긴 절대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주제 82 (1993)년 4월 9일을 떠나 결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에 대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오늘이 경이적인 현실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남들같은 얼룩덜룩 더 쓰러졌을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중요없이 총대를 앞세우고 조선혁명을 끝바른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김일성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신 여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있다.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영웅을 우리 당과 군대,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이 강산에 차넘치는 지금 온 나라 천만민들의 가슴가슴은 희세의 천출명장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신뢰심으로 깔없이 설레이고있다.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눈집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하시어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행장 위대한 김정일동지!

우리처럼 우리를 수호 사느냐 죽느냐 하는 엄혹한 시기 선군정치의 거세한 폭풍으로 적들의 악랄한 침략행동을 걸음마다 지부서버리신 천하제일명장의 영웅적기상이 빛바랜 듯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선에서 또 전선으로 끊이지없이 총명하신시며 별채산식전법, 초강대강행군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령령을 불러오신 백두령정의 발구름소리가 쿵쿵 울려와 격정을 갈갈수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발휘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그가 이룩한 빛나는 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그를 높이 존경하며 따르고있습니다.》 국방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조선의 영광

을 좌우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수시성상 조선혁명을 평도하시어는 전기간 총대중시, 군사중시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어 성스러운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명장, 위대한 정치가에 대한 천만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인 동시에 주체혁명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일대 정치적 사변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집약되면 가장 준엄한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시므로

세계를 경탄시키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 여러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

들이켜보수록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은 참으로 엄혹하였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 더 빨리 쫓아주었다. 그 거대한 힘의 원천이 다름아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명도였거니 그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의 행운이고 영광이며 긍지이다.

주제 85 (1996)년말 일군들에게 선군의 위력으로 준엄이던 난국을 타개하려는 철석의 의지에 대하여 선언하시면서 나는 선군후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주제 90 (2001)년 9월

로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평도하고있습니다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친다.

선군후로! 절세의 위인의 그렇듯 위대한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대적도 단면에 쳐부실 수 있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그 위용 더 긍지높이 떨칠수 있었으며 우리의 민간부력도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어찌보려고 날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제때에 여지없이 분쇄해 버릴수 있는 강철의 전투대우로 더욱 강화발전할수 있었거니이다.

그 나날 1211고지와 오성산, 판문점 등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에 어찌없이 이어가신 현지시찰의 길은 참으로 그 얼마인지 모른다.

주제 85 (1996)년 한해동안 안만 하여도 2만 5천여리에 달하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을 단행하시였으며 주제 86 (1997)년 한해동안에 어느 한 부대를 무려 5차례나 찾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주체적국방건설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되고 우리 인민군대가 명실공히 최고사령관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멸의 대우로, 일당백의 전투대우로 장성강화되던 영광의 그 나날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회견연설을 하시시면서 우리 인민들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평도하고있습니다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친다.

선군후로! 절세의 위인의 그렇듯 위대한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대적도 단면에 쳐부실 수 있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그 위용 더 긍지높이 떨칠수 있었으며 우리의 민간부력도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어찌보려고 날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제때에 여지없이 분쇄해 버릴수 있는 강철의 전투대우로 더욱 강화발전할수 있었거니이다.

그 나날 1211고지와 오성산, 판문점 등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에 어찌없이 이어가신 현지시찰의 길은 참으로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인민군대의 강화, 바로 이것이였다. 선군정치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군대가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며 대의를 행할수 있는 것이기이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을 조국수호의 기치, 삶의 표대로 깊이 간직하시고 슬죽은 공상, 기업소로 아니라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지 아니랴.

그 길에는 군인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넘고 헤치신 높고 험한 천막방도 있고 풍랑사나운 배길도 있으며 아흔아홉굽이의 철령도 깊이 추억하시였다.

뜻깊은 마음이고 어머니수령님의 자신애를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을 돌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은 오늘도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최고로수호하시어, 민족의 태양으로서

순엄한 마음이고 어머니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을 돌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은 오늘도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최고로수호하시어, 민족의 태양으로서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힘을 주제 85 (199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일당백의 대우로, 일당백의 대우로 장군님께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 유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자주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는것이다.》

조선의 위력의 원천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령도, 품도의 위대성에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자수위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사상사령관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힘을 주제 85 (199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일당백의 대우로, 일당백의 대우로 장군님께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 유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자주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는것이다.》

조선의 위력의 원천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령도, 품도의 위대성에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자수위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사상사령관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평도하고있습니다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친다.

선군후로! 절세의 위인의 그렇듯 위대한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대적도 단면에 쳐부실 수 있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그 위용 더 긍지높이 떨칠수 있었으며 우리의 민간부력도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어찌보려고 날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제때에 여지없이 분쇄해 버릴수 있는 강철의 전투대우로 더욱 강화발전할수 있었거니이다.

그 나날 1211고지와 오성산, 판문점 등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에 어찌없이 이어가신 현지시찰의 길은 참으로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인민군대의 강화, 바로 이것이였다. 선군정치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군대가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며 대의를 행할수 있는 것이기이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을 조국수호의 기치, 삶의 표대로 깊이 간직하시고 슬죽은 공상, 기업소로 아니라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지 아니랴.

그 길에는 군인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넘고 헤치신 높고 험한 천막방도 있고 풍랑사나운 배길도 있으며 아흔아홉굽이의 철령도 깊이 추억하시였다.

뜻깊은 마음이고 어머니수령님의 자신애를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을 돌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은 오늘도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최고로수호하시어, 민족의 태양으로서

순엄한 마음이고 어머니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을 돌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은 오늘도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최고로수호하시어, 민족의 태양으로서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힘을 주제 85 (199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일당백의 대우로, 일당백의 대우로 장군님께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 유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자주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는것이다.》

조선의 위력의 원천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령도, 품도의 위대성에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자수위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사상사령관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힘을 주제 85 (199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일당백의 대우로, 일당백의 대우로 장군님께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 유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자주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는것이다.》

조선의 위력의 원천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령도, 품도의 위대성에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자수위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사상사령관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힘을 주제 85 (199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일당백의 대우로, 일당백의 대우로 장군님께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 유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자주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는것이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평도하고있습니다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친다.

선군후로! 절세의 위인의 그렇듯 위대한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대적도 단면에 쳐부실 수 있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그 위용 더 긍지높이 떨칠수 있었으며 우리의 민간부력도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어찌보려고 날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제때에 여지없이 분쇄해 버릴수 있는 강철의 전투대우로 더욱 강화발전할수 있었거니이다.

그 나날 1211고지와 오성산, 판문점 등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에 어찌없이 이어가신 현지시찰의 길은 참으로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인민군대의 강화, 바로 이것이였다. 선군정치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군대가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며 대의를 행할수 있는 것이기이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을 조국수호의 기치, 삶의 표대로 깊이 간직하시고 슬죽은 공상, 기업소로 아니라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지 아니랴.

그 길에는 군인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넘고 헤치신 높고 험한 천막방도 있고 풍랑사나운 배길도 있으며 아흔아홉굽이의 철령도 깊이 추억하시였다.

뜻깊은 마음이고 어머니수령님의 자신애를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을 돌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은 오늘도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최고로수호하시어, 민족의 태양으로서

순엄한 마음이고 어머니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을 돌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은 오늘도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최고로수호하시어, 민족의 태양으로서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힘을 주제 85 (199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일당백의 대우로, 일당백의 대우로 장군님께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 유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자주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는것이다.》

조선의 위력의 원천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령도, 품도의 위대성에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자수위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사상사령관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힘을 주제 85 (199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일당백의 대우로, 일당백의 대우로 장군님께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 유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자주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는것이다.》

조선의 위력의 원천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령도, 품도의 위대성에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자수위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사상사령관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힘을 주제 85 (199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일당백의 대우로, 일당백의 대우로 장군님께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 유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자주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는것이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평도하고있습니다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친다.

선군후로! 절세의 위인의 그렇듯 위대한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대적도 단면에 쳐부실 수 있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그 위용 더 긍지높이 떨칠수 있었으며 우리의 민간부력도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어찌보려고 날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제때에 여지없이 분쇄해 버릴수 있는 강철의 전투대우로 더욱 강화발전할수 있었거니이다.

그 나날 1211고지와 오성산, 판문점 등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에 어찌없이 이어가신 현지시찰의 길은 참으로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인민군대의 강화, 바로 이것이였다. 선군정치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군대가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며 대의를 행할수 있는 것이기이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을 조국수호의 기치, 삶의 표대로 깊이 간직하시고 슬죽은 공상, 기업소로 아니라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지 아니랴.

그 길에는 군인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넘고 헤치신 높고 험한 천막방도 있고 풍랑사나운 배길도 있으며 아흔아홉굽이의 철령도 깊이 추억하시였다.

뜻깊은 마음이고 어머니수령님의 자신애를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을 돌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은 오늘도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최고로수호하시어, 민족의 태양으로서

순엄한 마음이고 어머니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을 돌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은 오늘도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최고로수호하시어, 민족의 태양으로서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힘을 주제 85 (199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일당백의 대우로, 일당백의 대우로 장군님께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 유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자주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는것이다.》

조선의 위력의 원천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령도, 품도의 위대성에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자수위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사상사령관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힘을 주제 85 (199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일당백의 대우로, 일당백의 대우로 장군님께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 유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자주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는것이다.》

조선의 위력의 원천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령도, 품도의 위대성에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자수위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사상사령관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힘을 주제 85 (199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일당백의 대우로, 일당백의 대우로 장군님께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 유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자주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는것이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평도하고있습니다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친다.

선군후로! 절세의 위인의 그렇듯 위대한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대적도 단면에 쳐부실 수 있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그 위용 더 긍지높이 떨칠수 있었으며 우리의 민간부력도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어찌보려고 날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제때에 여지없이 분쇄해 버릴수 있는 강철의 전투대우로 더욱 강화발전할수 있었거니이다.

그 나날 1211고지와 오성산, 판문점 등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때에 어찌없이 이어가신 현지시찰의 길은 참으로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인민군대의 강화, 바로 이것이였다. 선군정치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군대가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며 대의를 행할수 있는 것이기이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을 조국수호의 기치, 삶의 표대로 깊이 간직하시고 슬죽은 공상, 기업소로 아니라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지 아니랴.

그 길에는 군인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넘고 헤치신 높고 험한 천막방도 있고 풍랑사나운 배길도 있으며 아흔아홉굽이의 철령도 깊이 추억하시였다.

뜻깊은 마음이고 어머니수령님의 자신애를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을 돌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은 오늘도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최고로수호하시어, 민족의 태양으로서

순엄한 마음이고 어머니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을 돌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은 오늘도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최고로수호하시어, 민족의 태양으로서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힘을 주제 85 (199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일당백의 대우로, 일당백의 대우로 장군님께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 유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자주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는것이다.》

조선의 위력의 원천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령도, 품도의 위대성에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자수위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사상사령관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힘을 주제 85 (199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일당백의 대우로, 일당백의 대우로 장군님께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 유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자주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는것이다.》

조선의 위력의 원천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령도, 품도의 위대성에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자수위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사상사령관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힘을 주제 85 (199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일당백의 대우로, 일당백의 대우로 장군님께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 유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자주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는것이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평도하고있습니다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친다.

선군후로! 절세의 위인의 그렇듯 위대한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대적도 단면에 쳐부실 수 있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그 위용 더 긍지높이 떨칠수 있었으며 우리의 민간부력도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어찌보려고 날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제때에 여지없이 분

위대한 백두령장을 높이 모시고 혁명적대고조로 강성대국의 최후승리를 이룩해 나가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의 보고

동지들!
오늘 우리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선군의 기치높이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고조전군에 과감히 떨쳐나선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하신 17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일찍부터 탁월한 정치군사적평도로 백승의 역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최고수위에 모신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자위적국방건설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부강조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을 즐기차게 다그치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한 특기할 사변이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침에 대한 대결전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거창한 창조와 비약을 이 땅위에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서사시를 아로새겨온 자랑한 현실은 회색의 선군혁명정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이룩된 민족사적기적입니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정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힘있게 과시하여온 영웅적투쟁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그 어떤 천지풍파가 앞을 막아도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으며 일평단신 혁명의 수뇌부를 총괄하게 되나주 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동지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존엄떨치며 강성대국건설의 빛나는 혁명의 결실을 우리 조국의 령사는 혁명의 승리와 민족의 존망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는 결의 진리를 다시금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제국주의 반사회주의압살공세가 우리 나라에 집중되던 지난해 90년대 전반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눈에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시고 우리 공화국을 자주의 성세, 필승의 보루로 더욱 공고히 다지심으로 선군조선의 령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시신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우리 공화국이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통성변명해나갈수 있는 만년초석을 굳건히 다져놓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고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받들어오시며 혁명과 건설을 오직 수령님 뜻대로, 수령님신체대로 해나가도록 하시으로써 사회주의조선의 무궁한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이며 우리 공화국을 혁명적수령님이 확고히 선 조국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한 지대한 업적으로 됩니다.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위대성은 조선형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군의 원칙에서 우리 국가의 정치방식과 령도체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데서 뚜렷이 파시되었습니다.

총대중시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겨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제군사전문가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존망을 판가리하는 기본전선으로, 제일생명으로 되고있는 우리 혁명의 요

구를 반영하여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시고 전면적으로 실현하시어 주체혁명명의 새시대, 선군시대를 펼쳐시켰습니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며 반제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나가는 선군정치방식이 확립됨으로써 사회주의정치실현의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민중의 보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제국주의의 온갖 침략과 도전을 단호히 물리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선도하며 주체의 길, 선군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하는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정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방위원회의 지휘와 권능을 높이고 국방위원회를 주축로 하는 국가령도체계를 확립하시어 우리의 국가사회체도를 군사선정의 원칙에서 굳건히 다지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주권적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천리해안의 예지와 비범한 정치안목으로 혁명적수령관에게 기초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불멸의 리정표를 마련하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과 국방방위의 국가령도체계를 확립하시으로써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역사적전환을 이룩하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거룩한 업적으로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이끌어오신 역사적로정은 필승불패의 선군혁명령도로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성스러운 년대기에 빛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공화국의 정치사상적위업을 튼튼히 다지신것을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판건적문제에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혁명하게 조직명도하시었습니다.

선군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발전분화하시고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천만군민이 혁명의 수뇌부와 생산운명을 함께 하는 선군혁명동지의 대부대로 자라나 우리 혁명의 부강번영은 비상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튼튼히 꾸려주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체에 기초한 군민대단합을 이룩하도록 하시으로써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높이에서 굳건히 다지시켰습니다.

천만대오가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일심단결되고 온 나라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전변된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며 공화국의 정치사상적지반을 반석같이 다져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배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위업수행에서 국방력강화를 최우선적 임무로 내세우시고 주체적인 국방건설사상과 혁명무력건설로선을 밝히게 구현하시어 공화국의 군력을

비상이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군사정치를 철저히 다지셨습니다.

인민군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은 제국주의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전쟁책동을 제압분쇄하고 우리 조국을 세계적 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한 근본요인이었습니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위대한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오늘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명도밑에 전격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령군체제가 확고히 서고 모든 장병들이 조결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사회주의적주호정신과 반제계급의식으로 만장약단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일당백의 전투력을 소유하고 현대적 군사기술장비를 다 갖춘 최첨단전투대대로 역세게 자라나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국방공업발전에서 선진적기술을 도입하고는 사대중시기술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어 우리의 국방공업을 위력한 현대화위업과 군사기술수단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강유력한 토대우에 올려세우시고 전진무장화, 전격요새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셨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횡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에 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무참히 유린되고있는 때에 선군의 보검으로 우리 공화국을 금성철벽의 보루로,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것은 천하제일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이룩하신 불멸의 고귀한 업적으로 빛나고있습니다.

탁월한 선군령도로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비상이 강화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에 토대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일격로를 일떠세우신 성스러운 년대기에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하고 집요한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전대미문의 경제적난국이 조성된 최악의 역경속에서 우리 강성대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경시하고 부각하지고난을 진두에서 뚫고나가시며 조국명우에 창조와 변혁의 세 령사를 펼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인 선군조선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고 인민군대를 앞장세워 내세워 사회주의건설의 중요부문에서 전격의 돌과귀를 얻어나가게 하시면서 온 나라가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주시었기에 우리 인민은 과감한 투쟁으로 강성대국건설의 거창한 령사를 창조하여올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간고하고 엄혹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끝없는 애국헌신으로 조국명우에 경제강국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 선군정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령도는 선군조선이 비약의 토마를 타고 세계를 향하여 솟구쳐오르게 한 무한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천리마의 고향 강성령에 새로운 혁명적대조의 불화를 지펴주시고 그 불길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거세하게 타오르도록 하신것은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전향적전진을 가져온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분출시켜 온 나라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최후돌격전으로 불러일으키시고 조국방 방방목목을 현지지도하시며 령사적 150일전투와 100일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한없이 고결한 애국애민의 열정을 지니시고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수백개의 단위들을 찾아 쉬임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설적인 빨치산식강행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온 나라에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한 근본원천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철로동계급을 찾으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 대고조전군의 선봉에 내세워 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새해벽두부터 무한대의 정력으로 최첨단건설전진장에 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데 이어 재평판산과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평양방기구가공공장,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인민군대 여러 부문을 현지지도하시며 강성대국건설전진의 진두에서 끝없는 로고와 실험을 바쳐가고계십니다.

우리 인민에게 천만가지 복을 안겨주시려는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나라의 국력을 최성기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변불욕의 애국헌신에 의하여 이 땅우에는 세기를 두고 바라던 인민의 리상이 하나하나 현실로 꽃피어나는 희وان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나라가 당당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고 주체철 생산체계의 완성과 CNC기술의 첨단 유인 비날론이 팡팡 쏟아져나오게 된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통장훈을 부른 온 나라의 대경사로서 대고조전군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천백배의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습니다.

특히 2.8비날론련합기업소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공리의 종합적대화학기지로 전변되어 주체생유인 비날론이 팡팡 쏟아져나오게 된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통장훈을 부른 온 나라의 대경사로서 대고조전군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천백배의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장조물들이 일떠서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과학기술과 문화예술발전에서 날에날마다 자랑찬 승전소식들이 울려 퍼지는 격동적인 현실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곧 승리이며 장군님만 따르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심장으로 절감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과 국가건설령도업적을 혁명의 만년제보로 견결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던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사상의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굳게 뭉튼 혼연일체의 지향대로는 령사와 전승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 하였습니다.

우리는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의 무한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공세를 전격적으로 벌려 모든 첨단수준에 올려세우며 과학기술과 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혁명성을 고수하고 계급적원칙,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간고한 시련속에서 다져놓은 자립적민중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잠재력이 있기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이 준엄한 투쟁과 혁명동농장을 비롯한 인민군대 여러 부문을 현지지도하시며 강성대국건설전진의 진두에서 끝없는 로고와 실험을 바쳐가고계십니다.

우리의 선군혁명장을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차넘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호모와 신의의 마음을 담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무궁고도 영광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승리의 신심삼십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존엄이시고 민족의 운명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고모시는데서 혁명의 권리의 건설전진의 승리로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번영도 있다는 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넘쳐나는 변역의 해로 빛내 선군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선군혁명투사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과 국가건설령도업적을 혁명의 만년제보로 견결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던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사상의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굳게 뭉튼 혼연일체의 지향대로는 령사와 전승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 하였습니다.

우리는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의 무한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공세를 전격적으로 벌려 모든 첨단수준에 올려세우며 과학기술과 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혁명성을 고수하고 계급적원칙,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하였습니다.

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생존전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강성대국의 미래도 있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오종훈 7련대청호정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모든 장병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키워며 혁명적 령군체제와 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백두의 혼연열풍을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의 총력탄용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으로써 무적막강한 백두산 혁명강군의 위용을 높이 떨쳐야 하였습니다.

우리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발전에서 계속 큰 힘을 넣고 누구나 군사를 성실히 배워 건군현대화, 전진무장화를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모든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하였습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군민일치의 전격적미공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 선군조선의 자랑이고 밑뿌리인 우리의 군민대단결을 철로같이 다져나가야 하였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우리 국방위원회와 혁명의 기치를 무조건적으로 높이 들고 제대에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워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일적명도를 확고히 실현하며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국방위주의 우리 식 국가구체계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하였습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이며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현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올해공동사설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조, 김철로동계급의 권리의 건설전진의 승리로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번영도 있다는 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넘쳐나는 변역의 해로 빛내 선군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선군혁명투사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튼튼히 세워주고 이 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인민소비품생산과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서 전격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사색 전승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튼튼히 세워주고 이 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인민소비품생산과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서 전격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사색 전승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튼튼히 세워주고 이 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인민소비품생산과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서 전격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사색 전승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튼튼히 세워주고 이 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인민소비품생산과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서 전격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사색 전승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튼튼히 세워주고 이 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인민소비품생산과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서 전격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사색 전승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튼튼히 세워주고 이 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인민소비품생산과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서 전격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사색 전승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튼튼히 세워주고 이 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인민소비품생산과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서 전격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사색 전승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 하였습니다.

위대성과 새로운 대고조시대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온 나라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 락원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하였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고속도》의 창조자들과 비날론영웅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한목숨바쳐 현실로 꽃피우며 세계를 굽어보는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자력경쟁, 간고분투의 투쟁기풍,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정신과 조국의 억센 뿌리가 되려는 인생관을 지니고 오늘의 1분1초를 배필을 위한 위훈창조로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하였습니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전체 조선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반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전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에는 의연히 긴장되고 침에 대한 대결장태가 지속되고있습니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조선반도 《유사시》를 가상하여 모험적인 침략전쟁계획을 짜놓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대항살륙무기들을 증강배비하고있으며 공화국을 노린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핵전략적방위대로 우리 나라를 압살하려고 미처 날뛰고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높은 혁명적경각심을 가지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침략기도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으며 미국이 감히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1mm라도 침범한다면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정벌로 원수들의 아성을 흔들어 넘어뜨리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성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회색의 정치원로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인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군대,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시고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전군을 막을 힘은 온 세상에 없으며 우리 조국명우에는 반드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일떠서 온 나라에 빛을 뿌리게 될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나아가십시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선군정치의 고귀한 결실

영국단체 인터넷에 특집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하신 17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회가 3월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와 업적을 모시고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며 민족의 영광 끝없이 빛나자》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같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만방에 떨쳐지고 강성대국의 위대한 미래가 현실로 펼쳐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맞이하는 4월 9일은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정계인사 담화 발표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술한 정치군사적명도력과 백전백승의 선군정치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같은 남조선인민들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적극 따르고있는데 대해 전하고 회색의 정치원로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수위에 모시고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정계인사 담화 발표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술한 정치군사적명도력과 백전백승의 선군정치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같은 남조선인민들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적극 따르고있는데 대해 전하고 회색의 정치원로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수위에 모시고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김정일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그이께서 조선민족의 보다 밝은 앞날을 위하여 언제나 건강강신과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김일성주석각하는 인도네시아와 조선사회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적자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다.

김정일각하는 조선인민을

【조선중앙통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총직하게 받들어갈 불라는 맹세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7돌에 즈음하여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이 8일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로성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대동강구역녀맹위원장 한경숙, 락랑구역 락방3동 초급녀맹위원장 장경희, 선교구역 선교2동

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위업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력사적인 변혁과 승리가 이룩된 긍지높은 날이었으며 백두의 천출명장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위인상이 만천하에 파시린 성스러운 년대기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선군혁명령도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신 경에하는 장군님의 불변불후의 애국헌신

의 장정에 의해 오늘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이 땅위에 펼쳐졌다고 그들은 경이높이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녀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2월 24일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어 녀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녀맹원들과 녀맹원들이 경에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당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한복숨바쳐 현실로 꽃피우는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투사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이며 녀맹원들 대활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들고 인민군대를 성실성으로 원호하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며 《총성의 7월 11일붉은기동, 인민반》정취운동과 《선군생활문화보급가정》창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온 나라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각급 녀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녀맹원들이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지휘성원으로 준비하며 모든 녀맹원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함으로써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을 안고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타케쳐오르는 불길속에 뛰여든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는 경에하는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려는 열렬한 지향에 부리를 두었고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총직하게 받들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강성대국건설투쟁에서 남김없이 펼쳐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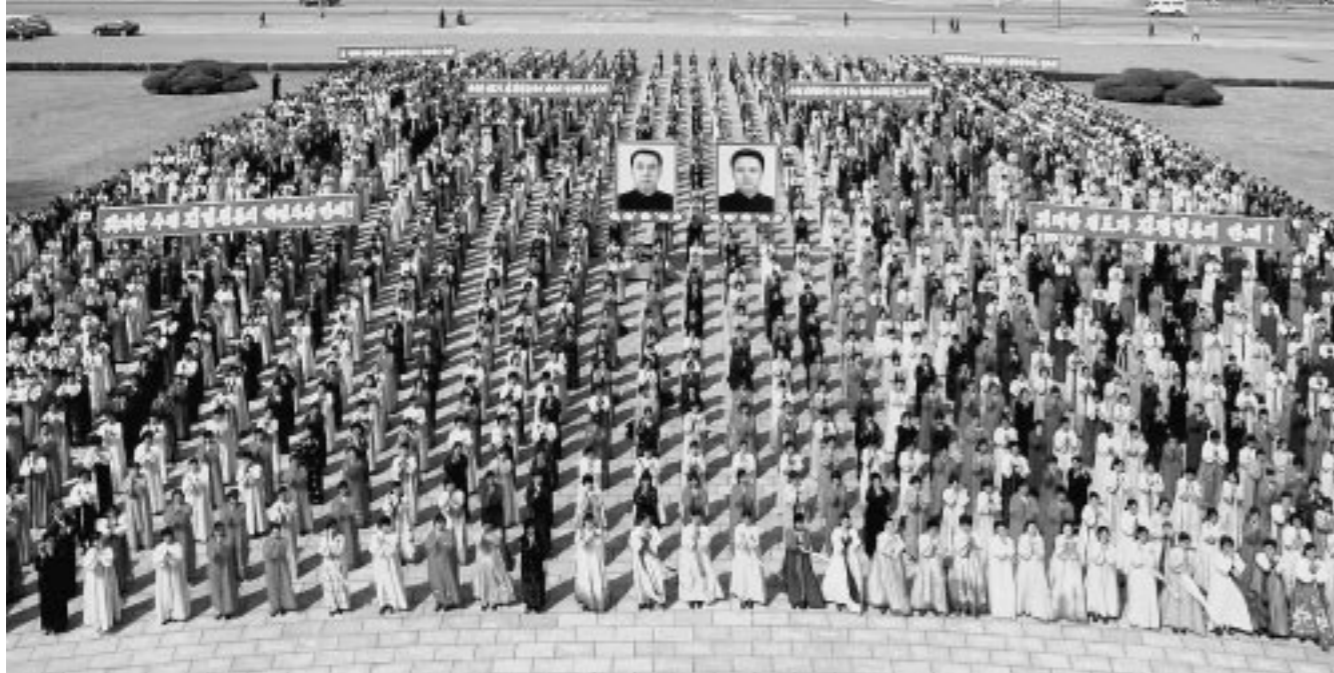
위대한 승리와 희망의 불우리인 2012년을 향하여 결집된 열의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 일어나는 희한한 전변을 생각하면 가슴이 부풀어오른다.

위성이 날아오른 우리의 하늘아래 주체철이 쏟아지고 우리 식 CNC머린이 불고있으며 《선군 11경》이 솟아오른 이 땅에 해초에는 비단배경사가 가득하다.

당창건 65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당이 내세운 드림없는 결심에 김철의 용해공들은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불라는 심장의 맹세로 화답해나섰고 대안의 로동계급은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에 첫 번째관들을 실어보낸 자랑드높이 충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락원에서, 강선에서, 재평과 검덕, 무산과 황해에서 용용히 굽어치는 총공적전의 기세는 온 나라 인민을 흥분시키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인 경공업과 농업부문



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녀맹원들과 녀맹원들이 경에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당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한복숨바쳐 현실로 꽃피우는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투사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이며 녀맹원들 대활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들고 인민군대를 성실성으로 원호하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며 《총성의 7월 11일붉은기동, 인민반》정취운동과 《선군생활문화보급가정》창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온 나라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각급 녀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녀맹원들이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지휘성원으로 준비하며 모든 녀맹원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함으로써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에 올려져있고있는 대고조국군의 힘찬 발구름소리는 우리의 미래를 또 얼마나 아름답게 하여주고있는것인가.

최현발전선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이 전방적, 전국각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적극 원호하며 전성로병들과 영애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도와주는 미풍이 온 사회에 활짝 꽃피어 사회주의 내 조국에 생기와 활력을 북돋아주고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설계도를 펼치고 방향표목을 찢고 또 찢으면서 뭉스 씨를 뿌리시고 애써 씌워 뒀어 주신것들이 오늘 선군의 대지에 훌륭한 열매로 주렁지고있다. 원산의 불아성이 그 손길에 희한한 절경을 펼쳤고 미곡과 만수, 동백의 강성대국리산춘풍, 한수대거리 살림집들과 토함산의 새 등산길 그 숭고한 헌신의 자욱자욱을 따라 이루어졌다.

성스러운 투쟁의 날에 생활체험을 통하여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손들어 가리키시며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선군혁명적 길, 강성대국건설의 대전진이 화환찬란한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신리로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어 우리의 운명, 우리의 행복,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영광찬란 하리라라는것이 천만의 심장에 뿌리내린 역사의 신념이다.

본사기자

원민의 성 활짝 꽃피우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대와 인민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온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선군시대에 더욱 높이 발양하여야 합니다.》

지난 1월 조선인민내무군 방촌산소속부대에서는 원민의 뜨거운 정을 안고 품을 들여 마련한 1000여개의 거름과 많은 소농기구, 영농자재를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협동농에 달려나가 일손을 도와주면서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군인이 힘을 합쳐 농사를 잘지어 10월의 경축광장에 자랑스럽게 들어서고 열렬히 호소하는 그들의 열정넘친 모습은 농장원들의 가슴을 후덥게 해주었다.

부대지휘관들과 병사들은 해마다 사회주의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크게 벌려왔다. 올해에도 이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의 하나인 농업전선을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에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긴 군인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며 인민의 군대로서의 훌륭한 품모를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최현발전선건설에 참가한 우리 군인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현속도》창조자답게 혁명적건진정신을 일깨워 발전소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고 웨치며 일당백군인들은 선군혁명의 주력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면 명칭을 가진 우리 군인들이다.

우리는 인민들속에서 자랑스럽게 불려오는 《우리 군대》라는 막숨에는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인민의 생명체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고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많이 하는것을 옹당한 본분으로 여기는 우리 군인들에 대한 인민의 진심어린 존경과 사랑, 대없는 믿음에 뜨겁게 담겨져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진욱

군인건설자들에게 대한 원호사업을 통이 크게

제신성 일군들과 종업원들

지난해 3월,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최현발전선건설장을 찾으신다는 격조넘친 소식에 접하였을 때였다.

성책일군들의 가슴은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건설자들 모두가 아직 배낭도 채 풀지놓지 못한 때에 산세원들 머나먼 건설장에 먼저 찾아가시어 나아가 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나간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에하는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온갖 감정을 일으켰다.

다음날 그는 최현발전선건설장을 찾았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그의 마음속에는 장군님의 명령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을 적극 도와와 줄 결심이 뿌리내려있었다.

초급당원회에서는 사회주의 내 조국방어 하루빨리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최현발전선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종업원들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쳤다.

며칠후 상에서는 최현발전선건설에 참가한 군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김영길, 심

장에 여러차례 찾아가시어 승리의 화살표를 그려주신 경에하는 장군님, 현재 30°C를 오르려는 후한날씨에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자기들의 웅대한 소행까지 헤아리시고 높이 평가하시길 언제 잊으셨나.

북방의 엄혹한 강추위속에서도 맹렬한 돌격전을 벌여 언제 건설력사에 없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에 비해보면 너무나 한 일이 적은 자기들이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새긴 그들은 분발해나섰다.

김인철, 최민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종업원들과 힘을 합쳐 더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치였다. ... 불같은 원군의 마음이 담겨진 차들이 건설장에 도착한 날 군인건설자들은 자기들을 찾아오시던 먼길을 달려온 체신성 일군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체신성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군인건설자들에게 안겨주며 다시금 마음다지였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자식들 기수가 되리라!

본사기자 김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성명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에서는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부동산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부동산조사는 지난 3월 4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담화를 통하여 3월부터 개성지구관광, 4월부터 금강산관광의 문을 열어놓으며 남측산당국이 계속 관광평가를 가로매는 경우 결단할것을 약속하였었다.

그동안 남측산당국은 우리의 인내정성을 노려고 남측산각계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립강교수》니 뉘니 하는서 관광평가를 위한 아무런 성의도 없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건에서 우리는 이미 선포한대로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부동산들을 위한 조사사업에 착수하였다.

원래 남측 부동산에 대한 동적조사를 취하는는 반드시 조사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법이 없으며 남측산당국이 관광평가를 공평하게 뒤집어엮었으므로 우리가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만 오만무례한 역적패거리들에게 애꿎게 피해를 입는 조선인민들의 심정을

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

더우기 금강산지역의 군사안보적가치와 세계적인 명승지들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남측인민들의 소원,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의 상진인 관광사업에 대한 거센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계산할수 있겠는가.

침해를 당한것이 있다면 파괴배당이 아니라 우리 인민이고 민족이며 남측 업체들이다. 금강산관광에 생계를 결고있는 수많은 남측 업체들이 파괴행위의 문에서 관광평가를 요구하여 시위까지 벌였지만 열굴조차 내밀지 않던 파괴배당이 그 무슨 《재산권침해》를 운운하는것은 역경이 그치지 않았다.

파괴배당이 《남북합의와 국제규범위반》을 떠드는것도 언더도단이다.

북남합의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무효화하고 우리의 현대사회의 합의를 뒤집어엮으면서 관광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것이 누구인가.

국제적으로 보아도 경제협약이나 계약이 일정한 기간 리행되지 못하면 파기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것이 보편화된 관례이고 상식이다.

결국 우리의 이번 조치는 국제관례와 규범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옹당한 권리행사이다.

파괴배당은 우리의 조지에 대해 이미 열개라도 할말이 없었었다.

우리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남측산당국의 태도까지 지켜보면서 파괴배당이 관광평가를 커녕 아무런 회색감도 없고 북남관계개선의 의지도 전혀 없으며 오직 대결에 미쳐있었다것을 최종확인하게 되었다.

그 무슨 《3대조건》이요 뭐요 하는것도 순전히 관광평을 깨기 위한 헛나팔이라는것이 만천하에 여실히 드러났다.

남측산당국이 극히 도전적으로 나오면서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더이상 파괴배당과 상충하면서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

파괴배당에 의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협담이 판무하고 체제대결이 위험계선을 넘어선 오늘의 정세하에서 이제 관광평문제따위는 더 혼란여지도 없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관광을 더는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급에 따라 이미 천명함대로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1. 우선 1차적으로 이번 부동산조사에 정면도전한 남측

산당국의 자살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을 추방한다.

2.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철수용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출입을 불허한다.

3. 남측산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협약의 계약이 더이상 효력을 가질수 없게 되었으므로 곧바로 사업자에게 의한 국내 및 해외금강산관광이 시작될것이다.

4. 남측산당국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제거되게 될것이다.

남측산당국은 어떠한 개편과 솔책으로써도 금강산관광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파괴하려 물어놓은 책임을 벗어날수 없으며 그 대가를 특루히 치르게 될것이다.

우리는 파괴배당에 의한 관광평과 모략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단호한 대응조치들을 편수 취해나갈것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존경하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종지와 함께 마련하여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에 대한 김일성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종지의 관심속에 강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미국이 수십년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반구바분쇄책동은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으며 미국에 부당하게 수감되어있는 구바에국대사의 석방을 위한 투쟁이 세계적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데 대하여

이 8일 비행기 8편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서, 니란토우 몽골 자주직할성에 있던 배우들 협회 성원, 린 씨도디움 프랑스 주체사상연구소 성원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총련일군대표단 도착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는 리광상 총련 나간호원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조선공민중앙협의회 부회장 도착
대양에서 즈음하여 김경희 재조선공민중앙협의회 부회장이 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 참가할 해외 동포 예술 단들 도착
【평양 4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 참가할 해외 금강산극단 단장인 리보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조선인민예술단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최수봉 재조선인민예술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 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도착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아나톨리 돌가체프 단장을 하는 로씨야 울라지보스포르 신군정지원구협회대표단, 바비츠 보그다나를 단장으로 하는 우크라이나자주연맹대표단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 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도착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아나톨리 돌가체프 단장을 하는 로씨야 울라지보스포르 신군정지원구협회대표단, 바비츠 보그다나를 단장으로 하는 우크라이나자주연맹대표단

자주통일시대를 힘있게 추동하는 위대한 선군령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역사의 그날로부터 17돌의 년율이 뜻깊게 아로새겨지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국방위원회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건은 선군의 기치밑에 승승장구하는 민족자주위업의 휘황한 전도를 펼쳐준 역사적사건이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침략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조국통일위업이 자주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선군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해내의 온 겨레는 장군님을 민족운동의 수호자,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장군님께서 다함없는 경의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인과 민족의 자주성도 혁명의 승리적전진도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될수 있습니다.》

민족자주위업의 전도는 전적으로 령도자의 신념과 정치지도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령도자의 자주적신념과 정치지도력이 강하면 힘찬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낼수 없다.

강한 자주적신념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선군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령도자 김정일 민족은 그 어떤 시련과 도전속에서도 자주

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는것이다.

돌아보면 지난 세기 90년대는 류례없이 엄혹하고 잔인한 시련의 나날이었다.

반만년민족사의 대극상에 몸부림치는 우리 겨레의 가슴에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반통일분자들은 침략과 압살의 총부리를 내었다. 편이 자연재해까지 겹쳐졌다.

우리는 시련앞에 주저앉아 노예가 되나, 난관을 박차고 자주적민족으로 일떠서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남들같은 열백년도 더 쓰러졌을 그 준엄하고 어려운 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였다.

추억도 가슴에이는 주제 83 (1994)년 12월의 마지막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인들이 있는 한 초소를 찾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넓은 품에 외락 얼굴을 묻는 군인들에게 장군님께서는 울지말라고, 평양에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설맞이 노래를 부르고있는데 동무들은 지금 총대를 그 노래를 지르고있다고, 나는 학생소년군건의 그 불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것을 총으로 말하고 싶어서 동무들에게로 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 누구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그 길을 택하시였는가 하는것을 알수 없었다.

선군, 그것은 인류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민족수호의 새 력사, 민족자주와 번영의 새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의 분출이였으니 언제나 장군님께서는 그대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자신께서 선군정치로 가장 어려웠던 《교단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제국주의자

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고,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전환적목표가 열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준엄하고 어려운 시련과 도전을 박차고 총대로 민족자주위업의 새 장을 펼쳐치러가는것이 절세의 애국자의 심장에 억척같이 새겨진 불멸의 의지였다. 그 의지를 안고서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걸음걸음 짓부셔버리시며 경애하는 장군님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은 정녕 수천리던가 수만리던가.

주제 85 (1996)년 11월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친필비를 보고 또 보시며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정말 많은 로고를 바치시고 불멸의 업적을 쌓으셨다고,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로고에 로고를 거듭하시던 지난날을 떠오르시며 하시며 통일위업실현에 바치신 수령님의 평생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군엄한 안색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를 우러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나는 수령님의 유훈대로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고 한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울려 퍼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선언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기어 이 실현하시려는 엄숙한 맹세였다.

애국적충성 총대의 위력으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자주통일의 결정적목표를 열어놓으실 원대한 위상을 무르익히시며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제 89 (2000)년 6월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그것은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 6.15 통일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6.15 통일시대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기 위해 발악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선군의 위력으로 짓부셔버리시며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즐기차게 떠밀어오시였다. 외세와 반역세력의 반통일전쟁책동에 철추를 안건 4.5 공동보도문의 발표도 선군정치로 마련되었고 분별주의의 쌍봉을 통일의 폭풍으로 쳐갈기며 장엄하게 선포된 10.4 선언도 선군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다.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끝없는 환희와 락관을 안겨주며 신심드높이 전진해온 6.15 통일시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필승의 선군정치의 거대한 생활력에 떠받들려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하기에 오늘 남조선인민들과 해내의 온 겨레는 《선군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는 바로 탁월한 선군령도자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이룩해놓으신 불멸의 공적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맡길분은 강철의 담력과 의지, 명철한 명군술을 지니시어 무적필승의 선군정장으로 명성을 떨치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다.》라고 격찬하고있다.**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악랄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 유기에 해내의 온 겨레는 통일위업의 승리를 확신하며 통일에극투쟁에 파감히 떨쳐나서고 있다.

본사기자 은정철

= 위대한 민족애가 펼친 감동깊은 이야기 =

들쪽솔이 견하는 사연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교향방문자로 공화국에 왔던 남조선의 한 기업가가 우리 안내일군에게 백두산들쪽솔을 많이 살수 있게 해줄것을 거듭 부탁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는 연희대 들쪽솔을 그저 보충용이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마셔보니 그 향기가 여차나 이 체롭고 감미로운지 정신이 핑 돌 지경이었다. 지금까

지 세계에서 이룬다 술은 다 마셔보았지만 백두산들쪽솔이 제일이라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백두산들쪽솔에 흠뻑 반했다, 백두산에서 나는 특산물이어서 그런지 더 마음이 끌린다고 하면서 남에 있는 친지들에게 꼭 이 술을 맛보이고싶다고 덧붙였다. **그날 저녁 일군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동지날에 있는 일

어린 동지팔쪽을 맛있게 들고있는 일군들을 정정하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근엄하신 어조로 나라와 민족이 분열된채 또 한해가 저물어간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동무들, 조국통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어 조국을 통일하고 남북포로**

제조업자의 경관

역사적인 평양상봉때 남측대표단 성원들은 연희대 축에서 위대한 장군님께 남쪽에서 첫 손가락에 꼽힌다는 문배술을 정중히 부어 올렸다. **잔을 받아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술이 좋다, 그런데 문배술의 진맛은 모란봉 주암산의 샘물로 담았을 때 비로소 알수 있다고, 그래서 예로부터 문배술은 주암산의 샘물로 담고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감격해났다. 남조선에서 살고있는 자기도 문배술의 유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있었는데 그이께서 그에 대해 그토록 환히 알고계시니말이다. **정녕 이것은 전조선을 한품에 안고계시는 위대한분 이시라는 생각으로 남측****

제조업자의 경관

물로 담고어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거저가게 해야 한다고, 고향방문을 갔는데 돈을 받았는가, 마윳게 가져가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포장을 잘해서 보내주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여기에는 민족의 특산품에 비친 한 기업가의 애정을 두시고도 멀리에 있는 자식들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남북동포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승고한 동포애의 뜨거운 정이 어려웠다.**

동지날에 있는 일

어린 동지팔쪽을 맛있게 들고있는 일군들을 정정하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근엄하신 어조로 나라와 민족이 분열된채 또 한해가 저물어간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동무들, 조국통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어 조국을 통일하고 남북포로**

제조업자의 경관

물로 담고어왔다

부당한 차별행위를 용서할수 없다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조치에 항의하여 1일 조선학교관계자들과 학부모, 학생들, 일본의 시민단체 성원들이 도쿄에 있는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교장 신길웅, 이바라기 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 최인태 등이 발언하였다.

발언자들은 3월 31일 일본참의원 본회의에서 조선학교민을 실질적으로 배제한 고등학교지원권법안이 가결, 성립되어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끝내 제외시킴으로써 일본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제일조선학생들과 학부모들, 동료모두

가 분노를 터뜨리고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지원대상에 왜 조선학교만이 속하지 못하는가고 항의하며 여기에는 일본당국의 정치적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들은 부당한 차별행위를 용서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회견에서는 일본인사들도 발언하였다.

《가나가와조선학원을 지원하는 회》 사무국장 소노베 마모루는 조선학교만을 제외한다는 지극히 유감스럽다. 외국인학교들이야 새로운 차별을 조장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일본학술교육연구회 부회장이자 조교사 요시노는 일본정부와 조선학교학생들에게 불안을 들이는데 대하여 사회해야 하며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쿄조선학원 리사장 김순언이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조치행위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유독 조선학교만을 고등학교지원대상에 제외시킨것은 교육의 자유를 무시하고 정치적의도에 따라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이것은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담화는 단죄하였다.

담화는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학교와 같이 차별없이 고등학교지원대상에 포함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금강산관광재개를 가로막는 당국을 규탄

남조선의 《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청년연대》, 《21세기 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이 3월 27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금강산관광재개를 가로막는 피괴범일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통일부》 장관 현인택을 비롯한 보수세당이 그 무슨 《3대조전》을 고집하며 금강산관광재개를 가로막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사이의 민간교류와 협력을 사사건건 막아나서는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통일부》 인지,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통일부》

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현인택이 즉시 사회애가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현 《정권》의 대결

정적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이입는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말할것도 없고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의 전망까지도 훼손되고 말았다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금강산관광재개는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이라

인자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현인택이 즉시 사회애가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현 《정권》의 대결

정적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이입는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말할것도 없고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의 전망까지도 훼손되고 말았다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금강산관광재개는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이라

또다시 드러난 《방송장악쿠데라》의 내막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3월 18일 논평을 발표하여 피괴당국의 《MBC》방송장악행위에 가담하였던 음모자들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론평은 《방송문화진흥회》 리사장이자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이변의 《MBC》방송사 사장교체논을 《청와대》가 편여한 사실을 실토하며 《이변 일로 방송사 파괴세력 70~80%가 정파되었다.》고 망언한데 대해 언급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언론계가 《만천하에 드러난 정부의 《MBC》장악쿠데라》로 막연히 방송장악행위를 비난하는 운동은 적극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생명의 강 지킴이 기독교행동》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연합대회를 가지고 《4대강정비》공사를 가장 중시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이것에는 30여개 교회의 목사, 신도들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비롯한 26개 종교단체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현 《정부》의

고 하면서 당국이 하루빨리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협상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시급히 청산해야 할 친일역적의 무리

그에 대해 합격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일본의 초등학교교과서 사용하게 될 모든 교과서들은 《독도명령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실리게 된다고 한다.

파괴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우리 민족에게 사죄, 배상하기는 고사하고 파멸하게도 독도강탈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처남편은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우리 겨레의 분노를 지어내었다. 이것을 목인한다면 일본반동들의 명도명암아름은 더욱 무분별해지고 그것이었으리라 우리 민족에게 큰 후환이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금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을 한목소리로 단죄하면서 그것을 단호히 짓부시고 일제의 파괴죄행을 반드시 결산하기 위해 공동으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이러한 높은 대일결단의지에 배반적계를 내어대면서 민족을 반역하는 썩개빠진 세력이 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에 항의하고있고

만 거기에 진심이 얼마나 깔려있는가고 사람들의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사실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이 오늘처럼 무분별한 지경에 이른것은 집권자마자 《파괴를 중지》는 일본파의 신허《시》나, 《미제지향적인 관계》니 하고 떠돌아다니는 남조선보수세당의 대내외적망동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 민족의 백년속적인 일본반동들과 야합해서라도 한국을 나쁜 동족을 기어이 해치고 북침야망을 실현해보자는것이 남조선집권세력이 추구하고있는 음흉한 속심이다. 이로부터 보수세당은 높아가는 전민족적인 반일기운에 등을 돌리려고 일본반동들의 력사의곡, 독도강탈책동을 눈감아주고있는것이며 그들과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것이다.

그것으로써 선상치 않아 미국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역적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충만시키고는 눈물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지어 반일렬사들을 《테러본

그것으로써 선상치 않아 미국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역적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충만시키고는 눈물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지어 반일렬사들을 《테러본

그것으로써 선상치 않아 미국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역적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충만시키고는 눈물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지어 반일렬사들을 《테러본

그것으로써 선상치 않아 미국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역적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충만시키고는 눈물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지어 반일렬사들을 《테러본

그것으로써 선상치 않아 미국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역적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충만시키고는 눈물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지어 반일렬사들을 《테러본

그것으로써 선상치 않아 미국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역적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충만시키고는 눈물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지어 반일렬사들을 《테러본

그것으로써 선상치 않아 미국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역적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충만시키고는 눈물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지어 반일렬사들을 《테러본

그것으로써 선상치 않아 미국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역적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충만시키고는 눈물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지어 반일렬사들을 《테러본

그것으로써 선상치 않아 미국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역적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충만시키고는 눈물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지어 반일렬사들을 《테러본

그것으로써 선상치 않아 미국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역적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충만시키고는 눈물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지어 반일렬사들을 《테러본

그것으로써 선상치 않아 미국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역적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충만시키고는 눈물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지어 반일렬사들을 《테러본

그것으로써 선상치 않아 미국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역적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충만시키고는 눈물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지어 반일렬사들을 《테러본

그것으로써 선상치 않아 미국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역적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충만시키고는 눈물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지어 반일렬사들을 《테러본

그것으로써 선상치 않아 미국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역적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충만시키고는 눈물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지어 반일렬사들을 《테러본

《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청년연대》, 《21세기 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이 3월 27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금강산관광재개를 가로막는 피괴범일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통일부》 장관 현인택을 비롯한 보수세당이 그 무슨 《3대조전》을 고집하며 금강산관광재개를 가로막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사이의 민간교류와 협력을 사사건건 막아나서는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통일부》 인지,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통일부》

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현인택이 즉시 사회애가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현 《정권》의 대결

정적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이입는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말할것도 없고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의 전망까지도 훼손되고 말았다고 개탄하였다.

4일 《생명의 강 지킴이 기독교행동》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연합대회를 가지고 《4대강정비》공사를 가장 중시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이것에는 30여개 교회의 목사, 신도들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비롯한 26개 종교단체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현 《정부》의

고 하면서 당국이 하루빨리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협상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청년연대》, 《21세기 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이 3월 27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금강산관광재개를 가로막는 피괴범일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통일부》 장관 현인택을 비롯한 보수세당이 그 무슨 《3대조전》을 고집하며 금강산관광재개를 가로막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사이의 민간교류와 협력을 사사건건 막아나서는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통일부》 인지,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통일부》

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현인택이 즉시 사회애가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현 《정권》의 대결

정적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이입는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말할것도 없고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의 전망까지도 훼손되고 말았다고 개탄하였다.

4일 《생명의 강 지킴이 기독교행동》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연합대회를 가지고 《4대강정비》공사를 가장 중시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이것에는 30여개 교회의 목사, 신도들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비롯한 26개 종교단체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현 《정부》의

고 하면서 당국이 하루빨리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협상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시대의 흐름에 도전해나선 극악한 호전세력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실용》독재의 2년 (14)

2년전 남조선당국자가 권력의 자리에 앉았으면서 북남판에 있어 《활을 리용하여 북이 변화된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것이 《국방정책의 주요요점》이라는 호전적담화를 늘어놓은것은 사실상 우리와의 군사적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길로 전진하겠다는 공언이나 다름없었다. 6.15 통일시대의 거머잡기 기세를 취어떠든 피괴범부호전세력에게 있어서 북남대결을 전면에 내건 현 보수당국자의 출현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이었다.

피괴적정권들은 살 때라도 만난듯이 입을 모아 군부가 지난 10년간 《불소화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회춘한 기운》이리나니, 지금이야말로 《군사적우세》로 《대북압박을 최대》로 하여야 할 때라니

니 뉘니 하고 떠돌아다니다 못해 지어 외세와의 야합으로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기 위한 기도 밑에 그 무슨 《통일리념》을 《강력한 군사적힘으로 뒤받침》하였다고 핑계를 부리면서

국도의 대결분위기를 고취하였다. 당시 피괴국방부 장관이었던 리상희가 당국자의 그 무슨 《국정철학》과 달라진 《대북정책방향》을 따르며 저들이 지금까지 《북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무리》해왔다는니, 《북은 최대의 주적》이리나니 《북은대외의 도발적인 담화들을 제쳐내면과 피괴합동참모본부의 장이었던 김태영이

《선제타격》 폭언을 방랑 늘어놓은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대결전쟁에 들뜬 소련정권은 그 무슨 《선제공격》과 《개척, 개관》을 유도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도 《군사적우세》에 있다고 북에 기대를 돌려면서 서둘러 무력으로 해칠 야망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북침에 환장한 보수세당은 지난 2008년에만도 뻔뻔하게 전쟁도발의판을 벌려놓은 《북괴의 국지분쟁가능성》과 《철저한 대북타격》을 운운하였는가 하면 화약대포기는 전쟁연습장들을 돌아치며 《북과 싸워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고언했다. 보수집권세력은 《군사적우세》와 《선제타격》을 떠돌이하며 미국으로부터 《F-15K》 전투투격기와 그에 장비할 정밀타격용장기미사일, 조기경보체계, 무인정찰기, 지하방공함정등첨첨무도련을 비롯한 최신공격무기와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청와대》와 피괴군부, 《통일부》, 《정보원》 등을 총동원하여 전면전과 국지전, 특수전 등 북침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보수당국의 호전성이 피괴군부에게서도 북침전쟁현황을 부채질해 해주었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보수세당의 부추김에 힘을 얻은 피괴군부는 《북의 위협》에 대응한 《확고한 억제력과 대비태세》,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작전종결태세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 무슨 《8대 국방정책기조》라는것을 내걸고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정책화하였으며 전쟁포로 역사의 이면의 《역제》로부터 《대북분쟁공격》으로 바꾸고 그에 따라 《북핵시설을 기습선제타격》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작전계획》을 공개하게 못해 나중에는 감히 그 누구에 대한 《응징》이 뉘니 하니 물론 못할 폭언까지 제쳐 두며 울지불지시 모르고 해버리며 날뛰었다. 북침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한 반역세당은 전체 무력을 동원하여 북침에 두고 군사분계선지역의 일선장교들에게 독자적인 《작전계획》까지 위임하였으며

불분별한 《북방한정세》를 《사수》하겠다고 고언하면서 생방간의 군사적강장이 극도로 첨예한 저해상에 고수적군부 주축한, 정쟁을 비롯한 각종 해군합선들과 대공미사일, 로무탄 등을 전진배치하고 군사적도발을 일삼았다.

동족대결정세로 사로잡힌 피괴군부호전세력은 《전시작전통제비확보》에 대해 떠들썩한 무력충격행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지난해 《군사정책방향》의 중심을 《전시작전통제비확보》에 두는 《작전계획 5027》을 핵선제공격행으로 뜯어고친것으로도 모자라 그보다 훨씬 더 모험적인 도발적인 《신년합작전계획 50127》과 그 무슨 《금번사태》를 가장한 《작전계획 5029》까지 작성해놓았다. 피괴군부에게서

북침전쟁에 들이킬수 없는 완전관란의 위기에 처하고 조선반도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어있다. 남조선호전정권들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담을 쌓고 6.15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의 길로 내달리려는 극악한 반통일대결정세라는것을 지난 2년간은 똑똑히 보여주었다. 시대착오적인 대결판에 사로잡혀 북침전쟁대결소동에 계속 매여 달리며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북침판계를 파란시킨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반드시 그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치르게 될것이다.

선군령장을 모시여 무적필승의 위용 떨치는 혁명강군

오늘 세계사회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백두령장, 백전백승의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자 최고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군대를 당합자이 세상에 없었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조선인민군이 강력한 군대라는 세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의 현대전쟁사라기적같은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 누구나 다 아는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백두공화국의 첫 무관으로 조선에 주재하면서 군사전문가로서는 발견이라고 자부할수 있는 귀중한 진리를 체득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우리 나라 주재 백두대사관 무관이사른 글의 한 대목이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사임하는 기간 조선인민군의 수평적사용위정신과 확고부동한 군풍, 견결한 자위정신을 통하여 무적필승의 위용이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하는것을 누구나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혁명무력에 대한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선의 무적필승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함으로 공인된 적수들을 대상으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다양한 형태의 전쟁을 하였고 그 모든 전쟁들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한 무적의 강군이다.》

군사전문가들과 세계 여러 출판보도물들은 조선의 무적필승은 결코 인공지위성으로 포착한 인민군대의 무적성상이나 컴퓨터로 계산한 전쟁수행능력만으로 판단할수 없다고 하였다. 어느 한 나라 출판물은 조선이 가지고있는 《가장 무서운 병기는 자폭정신》이라고 평하고 《세계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잘 무장된 군인집단은 가장 위대한 무적》이라고 썼다.

《조선인민군은 《자폭정신》을 지닌 조선인민군앞에서 미군이나 남조선군이 감내할수 없는 희생과 손실을 치르어야 할 운명에서 벗어날수있는가.》고 하면서 《조선인민군은 세계 어느 나라 군대와 대비도 안되는 강력한 반제반미부류》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한 우리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리날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해 알려져 모색한 의 국민들중에는 이진 소련국방상 드미트리야프도 있었다. 그는 이진 소련군에서 근무한 기간 조선인민군을 접한 경험에 대해 이렇게 썼다. 《조선인민군은 세계 어느 나라 군대와 대비도 안되는 강력한 반제반미부류》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한 우리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리날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해 알려져 모색한 의 국민들중에는 이진 소련국방상 드미트리야프도 있었다. 그는 이진 소련군에서 근무한 기간 조선인민군을 접한 경험에 대해 이렇게 썼다. 《조선인민군은 세계 어느 나라 군대와 대비도 안되는 강력한 반제반미부류》이라고 강조하였다.》

담력과 배짱, 평활무쌍한 지략에 대하여 다소나마 알고는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백두산의 담력과 기상을 천품으로 지니고 일관 결심하면 무비의 공격정신으로 그것을 실현해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특유한 혁명적기질이 더 천품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김일성은 끝 성공과 승리를 의미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심하시어 못하신 일이란 없으며 그것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성공과 승리를 안아왔다.

야조브는 어느해 폭풍전야의 우리 나라 정세를 두고 가슴조이던 자기 심정에 대하여 토로하면서 강철의 의지와 뛰어난 지략의 소유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우단을 내리시어 역경을 순경으로 견뎌나가기로써 예상을 뒤엎어있었다고, 그의 지략에 백전백승도 반복하고있다고 칭송하였다. 《무적필승의 상징이신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의 무적은 앞으로 더 필승불패할것이다.》

그는 이렇게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세계인민들이 반복하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담력과 배짱은 그 어떤 강적이 떠든다 해도 후호도 흔들리지 않고 맞받아나갈 것들뿐이라는 것이다. 적들과의 대결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투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위급한 사태가 조성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세계인민들이 반복하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담력과 배짱은 그 어떤 강적이 떠든다 해도 후호도 흔들리지 않고 맞받아나갈 것들뿐이라는 것이다. 적들과의 대결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투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위급한 사태가 조성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세계인민들이 반복하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담력과 배짱은 그 어떤 강적이 떠든다 해도 후호도 흔들리지 않고 맞받아나갈 것들뿐이라는 것이다. 적들과의 대결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투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위급한 사태가 조성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세계인민들이 반복하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담력과 배짱은 그 어떤 강적이 떠든다 해도 후호도 흔들리지 않고 맞받아나갈 것들뿐이라는 것이다. 적들과의 대결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투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위급한 사태가 조성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적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위협천만만 정세가 조성되었을 때에도 철의 신병과 배짱으로 적들의 책동에 맞받아나갔으며 1990년대에 제국주의들과 반동들이 우리에게 대한 핵사찰소동을 벌이며 세 전쟁도발책동에 미처나갈 때에도 강경고압자세로 적들을 짓눌러놓으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적들의 엄중한 군사적도발과 위협협박을 단말마적박약으로 여기시고 그에 자신만만하게 대처해나갔었다.

일본의 한 인사는 자기의 책에 《김일성주석의 후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시게 되면 조선인민군대는 오늘 무적의 강군으로 되겠다.》라고 서술하였다. 정녕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의 혁명무력은 필승불패하는것이다. 《무적필승의 상징이신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의 무적은 앞으로 더 필승불패할것이다.》

그는 이렇게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세계인민들이 반복하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담력과 배짱은 그 어떤 강적이 떠든다 해도 후호도 흔들리지 않고 맞받아나갈 것들뿐이라는 것이다. 적들과의 대결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투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위급한 사태가 조성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세계인민들이 반복하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담력과 배짱은 그 어떤 강적이 떠든다 해도 후호도 흔들리지 않고 맞받아나갈 것들뿐이라는 것이다. 적들과의 대결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투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위급한 사태가 조성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세계인민들이 반복하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담력과 배짱은 그 어떤 강적이 떠든다 해도 후호도 흔들리지 않고 맞받아나갈 것들뿐이라는 것이다. 적들과의 대결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투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위급한 사태가 조성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세계인민들이 반복하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담력과 배짱은 그 어떤 강적이 떠든다 해도 후호도 흔들리지 않고 맞받아나갈 것들뿐이라는 것이다. 적들과의 대결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투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위급한 사태가 조성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백전백승의 강군으로 온 세상에 위용떨치고있는것이다. 그 위력앞에 제국주의자들은 넋을 잃고 공포에 떨고있다. 미국방성의 한 고위관료까지도 북조선군대에서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사상은 피로 되며 그의 명령은 가장 성스러웠으며, 철칙으로 되고있다. 그래서 령도하시는 북조선군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시도 마음놓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강적이 되고 말았다.

네탈슨은 《라이징 네탈》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인류역사는 이들을 펼친 명장들과 영웅호걸들을 적지않게 기록하고있지만 그들의 재능은 누구나 할것없이 일정한 분야에만 한정되어있었다. 그러나 역사에 일찍이 있어 본적이 없는 문무를 겸비한 명장이 없지 않게 출현하시었다. 그분이 바로 다음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원수이다.》

김정일원수는 명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품격, 문무와 덕을 완전무결하게 겸비하신 명장들의 모신 것이다. 이러한 명장을 모신 조선의 군대와 국방력이 어찌 강하지 않을수 있으며 조선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지 않을수 있었는가.》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패 회 교 의 정 당, 단 체 들 의 공 동 성 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 17돐에 즈음하여 메히교의 정당, 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010년 4월 6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시며 조선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신 17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메히교의 정당,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반대단체들은 나라의 자주통일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로고 불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들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고조시키는데 세계 진보적정당들과 인민들앞에 나서는 승고한 국제적의무로 된다고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호금도총서기 당선설의 과학화수준을 높일데 대해 강조

【메이징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호금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6일 당중앙에서 과학발전전반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총화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당선설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노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활동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는 것은 과학발전전반을 철저히 관철하고 새로운 정세에서의 당선설을 개선강화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국면

을 개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의 집권능력건설과 선진성정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이번 활동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사업에 구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메이징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호금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6일 당중앙에서 과학발전전반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총화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당선설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노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활동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는 것은 과학발전전반을 철저히 관철하고 새로운 정세에서의 당선설을 개선강화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국면

을 개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의 집권능력건설과 선진성정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이번 활동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사업에 구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메이징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호금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6일 당중앙에서 과학발전전반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총화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당선설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노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활동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는 것은 과학발전전반을 철저히 관철하고 새로운 정세에서의 당선설을 개선강화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국면

을 개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의 집권능력건설과 선진성정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이번 활동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사업에 구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메이징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호금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6일 당중앙에서 과학발전전반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총화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당선설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노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활동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는 것은 과학발전전반을 철저히 관철하고 새로운 정세에서의 당선설을 개선강화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국면

을 개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의 집권능력건설과 선진성정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이번 활동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사업에 구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메이징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호금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6일 당중앙에서 과학발전전반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총화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당선설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노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활동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는 것은 과학발전전반을 철저히 관철하고 새로운 정세에서의 당선설을 개선강화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국면

을 개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의 집권능력건설과 선진성정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이번 활동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사업에 구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메이징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호금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6일 당중앙에서 과학발전전반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총화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당선설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노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활동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는 것은 과학발전전반을 철저히 관철하고 새로운 정세에서의 당선설을 개선강화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국면

을 개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의 집권능력건설과 선진성정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이번 활동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사업에 구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메이징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호금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6일 당중앙에서 과학발전전반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총화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당선설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노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활동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는 것은 과학발전전반을 철저히 관철하고 새로운 정세에서의 당선설을 개선강화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국면

을 개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의 집권능력건설과 선진성정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이번 활동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사업에 구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메이징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호금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6일 당중앙에서 과학발전전반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총화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당선설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노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활동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는 것은 과학발전전반을 철저히 관철하고 새로운 정세에서의 당선설을 개선강화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국면

을 개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의 집권능력건설과 선진성정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이번 활동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사업에 구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책동을 배격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최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미국이 전쟁을 부릴수록 이란인민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분투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최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미국이 전쟁을 부릴수록 이란인민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분투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

가나대통령 존 에번즈 아라디가 5일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안전과 인민들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주는 온갖 범죄와 무질서한 행위들을 근절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나대통령 존 에번즈 아라디가 5일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안전과 인민들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주는 온갖 범죄와 무질서한 행위들을 근절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란핵문제의 외교적해결을 주장

튀르키예수상 에르도간이 최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란핵문제를 외교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미국과 서방이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을 문제시하면서 이라력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튀르키예수상 에르도간이 최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란핵문제를 외교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미국과 서방이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을 문제시하면서 이라력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규탄

인도네시아의무성 대변인이 최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규탄하였다. 그는 가자지대에서의 이스라엘의 무력사용을 국제법에 대한 한탄적인 위반으로 략인하고 그것은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룩

인도네시아의무성 대변인이 최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규탄하였다. 그는 가자지대에서의 이스라엘의 무력사용을 국제법에 대한 한탄적인 위반으로 략인하고 그것은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룩

성행하는 현대판 노예산업

노예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다. 원래 노예란 노예소유자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소유자의 완전한 소유물로 되어 마소와 같은 부리를 당하며 물건처럼 매매되고 죽을도 경사당한 하치계급을 말한다. 역사상 흘러 노예사회로부터 계급사회가 이르도록 바뀌었으며 인류문명이 여러차례 발전하였다. 21세기 후반엽부터 노예사회의 잔재가 남아있고 있다. 남로 들어나는 현대판노예들중에서 성인녀성이 66%를 차지하며 그밖에 소년과 13%, 성인남성이 12%, 소년 9%이다.

노예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다. 원래 노예란 노예소유자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소유자의 완전한 소유물로 되어 마소와 같은 부리를 당하며 물건처럼 매매되고 죽을도 경사당한 하치계급을 말한다. 역사상 흘러 노예사회로부터 계급사회가 이르도록 바뀌었으며 인류문명이 여러차례 발전하였다. 21세기 후반엽부터 노예사회의 잔재가 남아있고 있다. 남로 들어나는 현대판노예들중에서 성인녀성이 66%를 차지하며 그밖에 소년과 13%, 성인남성이 12%, 소년 9%이다.

노예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다. 원래 노예란 노예소유자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소유자의 완전한 소유물로 되어 마소와 같은 부리를 당하며 물건처럼 매매되고 죽을도 경사당한 하치계급을 말한다. 역사상 흘러 노예사회로부터 계급사회가 이르도록 바뀌었으며 인류문명이 여러차례 발전하였다. 21세기 후반엽부터 노예사회의 잔재가 남아있고 있다. 남로 들어나는 현대판노예들중에서 성인녀성이 66%를 차지하며 그밖에 소년과 13%, 성인남성이 12%, 소년 9%이다.

노예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다. 원래 노예란 노예소유자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소유자의 완전한 소유물로 되어 마소와 같은 부리를 당하며 물건처럼 매매되고 죽을도 경사당한 하치계급을 말한다. 역사상 흘러 노예사회로부터 계급사회가 이르도록 바뀌었으며 인류문명이 여러차례 발전하였다. 21세기 후반엽부터 노예사회의 잔재가 남아있고 있다. 남로 들어나는 현대판노예들중에서 성인녀성이 66%를 차지하며 그밖에 소년과 13%, 성인남성이 12%, 소년 9%이다.

노예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다. 원래 노예란 노예소유자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소유자의 완전한 소유물로 되어 마소와 같은 부리를 당하며 물건처럼 매매되고 죽을도 경사당한 하치계급을 말한다. 역사상 흘러 노예사회로부터 계급사회가 이르도록 바뀌었으며 인류문명이 여러차례 발전하였다. 21세기 후반엽부터 노예사회의 잔재가 남아있고 있다. 남로 들어나는 현대판노예들중에서 성인녀성이 66%를 차지하며 그밖에 소년과 13%, 성인남성이 12%, 소년 9%이다.

노예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다. 원래 노예란 노예소유자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소유자의 완전한 소유물로 되어 마소와 같은 부리를 당하며 물건처럼 매매되고 죽을도 경사당한 하치계급을 말한다. 역사상 흘러 노예사회로부터 계급사회가 이르도록 바뀌었으며 인류문명이 여러차례 발전하였다. 21세기 후반엽부터 노예사회의 잔재가 남아있고 있다. 남로 들어나는 현대판노예들중에서 성인녀성이 66%를 차지하며 그밖에 소년과 13%, 성인남성이 12%, 소년 9%이다.

노예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다. 원래 노예란 노예소유자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소유자의 완전한 소유물로 되어 마소와 같은 부리를 당하며 물건처럼 매매되고 죽을도 경사당한 하치계급을 말한다. 역사상 흘러 노예사회로부터 계급사회가 이르도록 바뀌었으며 인류문명이 여러차례 발전하였다. 21세기 후반엽부터 노예사회의 잔재가 남아있고 있다. 남로 들어나는 현대판노예들중에서 성인녀성이 66%를 차지하며 그밖에 소년과 13%, 성인남성이 12%, 소년 9%이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합 조
싱가포르와 프랑스 리카가 6일 두 나라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보다 앞서 5일 만행조리사회 성원국들과 동부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성원국들은 경제, 무역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관한 양해각서에 조인하였다.

비행장확장공사
에티오피아에서 최근 아소사 비행장확장공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2 200여 m의 부지면적에 터럭들을 위한 새로운 봉사시설 등이 건설되고있다. 공사는 2년동안 진행되게 된다 한다.

3층으로 된 이 도서관의 부지면적은 1만 2 400m에 달한다. 도서관에는 20만여권의 각종 도서들이 있으며 토론회장, 전시회장 등 시설들도 갖추어져있다 한다.

인플레이션 감소
이란에서 올해 3월에 끝난 지난 이란년도에 인플레이션이 그전 이란년도에 비해 13.7% 감소되었다. 4월 이 나라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3월에 인플레이션이 2월의 3.81%로부터 3.43%로 감소되었다. 1월 이 나라 국가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도서관 건설
마르코의 카사블랑카에 큰 규모의 도서관이 건설되어 2월에 개관하였다.

나이지리아에서 원유채취
일부 흑기아도의 서남부지역 앞바다에서 3월 30일 리히터척도 5.7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바다물면 약 10km 깊은 곳에 있었다 한다. 뉴질랜드 노스섬의 플렌티만에서 3월 31일 리히터척도 5.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섬으로부터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다. 칠레의 남부지역에서 1일 리히터척도 5.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산티아고로부터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다.